

2019시즌은 고진영의 해

올해의 선수상부터 상금왕·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까지 석권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상금왕과 베어트로피까지 품에 안고 화려하게 2019시즌을 마무리했다.

고진영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달러)에서 11언더파 277타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은 이미 2019시즌 메이저대회 2승 및 총 4승을 올리면서 올해의 선수상, 아니 카 메이저 어워드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이번 대회 전까지 상금 271만4281달러로 2위 이정은(6·23·대방건설)에 70만달러 이상 앞서 상금왕 등극도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우승상금으로 여자골프 역대 최대인 150만달러(약 17억6700만원)가 걸려 있었기에 고진영으로서도 상금 1위를 장담할 수 없었다.

우승 상금 150만달러를 차지할 경우 상금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 챔피언에 등극한 김세영(26·미래에셋)을 비롯해 공동 3위 다니엘 강(미국)과 벨리 코다(미국), 5위 브룩 헨더슨(캐나다), 공동 6위 렉시 톰슨(미국) 등은 우승할 경우 고진영의 성적에 따라 상금왕 등극이 가능했다.

고진영은 2라운드까지 공동 23위에 그

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면서 순위를 끌어 올렸다. 김세영이 우승한 가운데 고진영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1타를 줄이면서 최종 공동 11위를 마크, 자리를 수성했다. 김세영이 우승할 경우 고진영은 23위 이상을 기록해야 상금왕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김세영 우승...공동 11위로 마쳐 시즌 막판 부상 불구 화려한 마침표

결국 고진영은 최종 상금 277만3894달러(약 32억6764만원)로 김세영(275만3099달러)을 제치고 상금왕에 올랐다. 한국선수로는 2009년 신지애,

2010년 최나연, 2012년과 2013년 박인비, 2017년 박성현에 이어 6번째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도 품에 안았다. 고진영의 평균 타수는 69.062타로 69.408타인 2위 김효주(24·롯데)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진영은 2003년 박세리, 2004년 박지은, 2010년 최나연, 2012년과 2015년 박인비, 2016년 전인지에 이어 베어트로피를 수상하게 됐다.

고진영은 시즌 막판 발목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상금왕과 베어트로피를 지켜내며 화려했던 2019시즌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올해의 선수상, 베어트로피, 상금왕을 동시에 석권한 것은 고진영이 최초다.



프로야구 KIA, 조건 없는 트레이드로 SK 나주환 영입

“풍부한 경험 갖춘 내야 백업, 활용폭 크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5일 SK 와이번스와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 나주환(35)을 영입했다. 복일고를 졸업한 나주환은 2003

년 2차 2라운드 16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으며 이후 2007년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SK로 유니폼을 갈아 입었다. 나주환은 프로 통산 15시즌 동

안 타율 0.262, 83홈런, 467타점, 503득점을 기록했으며 올 시즌에는 9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22(225타수 50안타), 20타점, 14득점을 올렸다.

KIA 관계자는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결정해 준 SK 구단에 감사하다”며 “나주환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데다 유격수와 2루 수비가 가능해 내야 백업 요원으로 활용폭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SK 측은 “내년 시즌 전력 구상에 나주환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구단은 코치연수나 프론트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면서 “이를 타 구단들에 공유했고, KIA가 관심을 가지면서 상호 간 무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빠른 양발잡이 날개 공격수

손흥민, ‘모리뉴’라는 날개 달다

근래 축구 팬들의 최대 관심은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된 ‘스페셜 원’ 조제 모리뉴 감독과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의 ‘궁합’에 맞춰졌다.

토트넘은 지난 23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3무2패, 승리가 없던 토트넘은 6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리면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에 특별했다. 지난 5년 6개월간 팀을 이끌던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뒤 모리뉴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경기였다. 토트넘 팬들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이 11개월 만에 EPL로 돌아온 모리뉴 감독의 복귀전에 시선을 집중시켰는데, 경기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하는 윙 포워드로 나선 손흥민은 반대편의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에 개입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포인팅도 쏟아냈다.

전반 36분 말레 알리의 스푸레스를 정확한 타이밍과 터치로 쇄도하며 받아내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수비수 한 명을 개인기로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시도해 웨스트햄 골망을 흔들었다. 모리뉴 부임 후 첫 골을 안긴 손흥민은 기세를 이어 두 번째 골에도 관여했다.

전반 43분 탁월한 스피드로 왼쪽 측면을 허물어뜨린 손흥민은 곧바로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를 문전에서 모우라가 밀어 넣으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의 정확도 모두 톱클래스였지만 그에 앞서 알리가 측면에서 쓰러지면서 실려낸 공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성실한 움직임과 순간 판단력에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부진의 늪에서 벗어 나지 못하던 토트넘으로서도 1년 가까이 무직 생활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모리뉴 감독으로서도 부담감을 어느 정도 털고 자신감을 취할 수 있던 값진 승리였다. 무엇보다 한국팬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결과와 내용이었다. 손흥민이 모리뉴 체제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경기다.



이제 1경기 했으니 선불리 재단 하기는 어려우나 분명 모리뉴의 토트넘은 포체티노의 토트넘과 달리 질 공산이 커 보인다. 공격적 색채가 강했던 포체티노는,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패스로 풀어가며 경기 전체를 지배하려 했다. 반면 수비 비중을 높인 벨런스 축구를 구사하면서 ‘실효’를 가장 중시하는 모리뉴는 포체티노에 비하면 단계와 역할이 간결하다.

이중 공격 시 모리뉴가 추구하는 효율적 투트에서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날개 공격수’다.

첼시 시절 아르넨 로벤이나 레알 마드리드 때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디 마리아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빠르고, 드리블 돌파 능력이 있고, 직접 슈팅까지 가능한 윙어를 활용해 많은 재미를 보였다. 지도자의 스타일은 잘 바뀌지 않는다. 토트넘 첫 경기에서도 모리뉴는 창의력 좋은 패스를 지닌 말레 알리를 축으로 손흥민-모우라 날개를 활용해 웨스트햄을 흔들었다.

이적시장이 닫혀 있는 때라 현재 자원으로 한동안 팀을 운영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할 때 손흥민은 모리뉴 체제 초반 중요한 임무를 맡 공산이 크다.

조건에서 빠질 것 없다. 빠르고 드리블 잘하고 슈팅력도 갖췄다. 게다가 양발잡이라 측면을 치고 들어가다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안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리는 소위 ‘반대발 윙어’ 역할도 할 수 있다. 한국대표팀에서 잘 보여주었듯 수비가담도 뛰어나다. 날개 공격수 손흥민이 모리뉴라는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할 수도 있는 새 발판이 마련됐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자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